

◎ 교회목표 ◎

- 1. 천국시민 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 1996년도 표어 ◎

“성숙한 교회를 이루자”(엡4:13)

◎ 생활지침 ◎

- 섬기는 생활
- 주는 생활
- 경건한 생활

발행인: 이종윤 발행처: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737-3 전화 (02) 517-7651 ~ 5 팩스 (02) 512-1225

수해지역에 형제사랑을

최근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경기도 북부와 강원도 지역의 형제 자매들이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다.

우리 교회도 두 분의 교역자와 두 분의 장로가 지난 주 수해 현장을 방문하여 우선 급한대로 식수와 라면 등 응급식량을 제공하고 어려움을 당한 현지의 수재민들을 위로했다. 각 사회 각계각층에서도 온정의 손길을 펴고 있지만 현재 충분치는 않은 실정이다. 더욱이 현지에 도착한 구호물품도 구석구석 필요한 곳에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지를 둘러본 김태기·윤봉준 장로는 “현지에 가보니 보도매체에 알려진 것보다 훨씬 사정이 어려움을 알았다”고 현지의 사정을 전했다.

연천군 청산면 대전리제일교회는 교회당이 70% 침수되는 피해를 입었음에도 담임목사인 백준 목사는 교회당의 물품을 미처 구할 겨를도 없이 현지의 주민들을 대피시키는 육신구원의 모범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대신 이 교회는 교회성구들이 물에 잠겨 못쓰게 되는 피해를 감수해야만 했다. 피아노와 키보드, 음향시설 등은 완전히 물에 잠겨 사용할



지붕까지 침수되어 마을 전체가 쓰레기로 변해버린 수해 지역. 그러나 이곳에 복구와 구호의 손길이 전혀 닿지 않고 있다는 것이 현지를 돌아보고 온 이들의 보고이다.

교회 4층에는 수해지역 주민을 도우려는 성도들의 온정의 손길이 담겨 있다. 한주간 모은 50여 박스의 구호품은 6일(화)에 의연금과 함께 전달할 예정.

주일 I, II, III부 예배 후 교회당 앞에 모금함 설치 의복, 식량 등 생필품과 의연금 모아 6일 현지 전달

수 없이 되었고 강대상과 의자 및 기타 기물도 침수 피해를 당해 건조시켜 사용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었다.

뿐만 아니라 목사관도 90%가 침수되는 바람에 컴퓨터, 서적 등 설교준비에 필요한 기구가 물에 젖어 사용할 수 없게 되었고 가전기구 등 생활에 필요한 물품도 폐기처리해야 하는 상황이다.

같은 지역 전곡읍 진상교회(담임 김학래 목사)의 경우는 다행히 교회당이 고지대에 위치하여 수해 피해는 입지 않았다. 그러나 이 교회 성도들의 가정이 비피해를 크게 입었다. 총 150세대 중 130세대가 지붕까지 완전히 침수되는 어려움을 겪었고 20세대도 건물의 절반이 잠기는 피해를 입었다.

이런 피해 소식을 접한 우리 교회는 지난

주 각 다락방에서 옷가지와 그릇 등 생활필수품과 가재도구 등을 모았다.

이미 교회에서는 피아노와 쌀 1백포를 준비했고 서적도 일부 마련했다. 또 주일 I, II, III부 예배 후에는 교회당 앞에서 모금함을 설치, 전교인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다.

이러한 수재 구호품과 의연금 모금은 5일(월)까지 계속된다.

수집된 물품과 수재의연금은 6일(화) 이종윤목사와 구제위원들이 수해현지로 가서 현지교회에 전달하여 구호활동을 펴게 된다.

한편 현지에서는 모든 것이 물에 잠겨 어떤 것이라도 아쉬운 실정이다. 의복과 내의는 말할 것도 없고 쌀과 밀반찬 등 식량, 타월, 세면도구 등 생활필수품과 이불 등 침구 모든 것이 시급히 필요하다고 전하고 있다.

다음 주일에 광복절 연합예배·강연회

한기총 주최, 우리교회당서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가 주최하는 제 51주년 광복절 기념예배를 11일(주일) 오후 5시 우리 교회당에서 드리게 되었다.

한국교회 연합을 위해 드리는 이날 예배는 한기총 대표회장인 최훈 목사가 “기독교의 자유관”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며 아

울러 이날 예배 후 민경배 교수(연세대)가 “광복이 주는 오늘의 의미”라는 제하의 특별강연도 한다.

한편 이날에는 우리 민족에게 해방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복음화된 통일조국을 위해 간구하면서 성명서를 낭독하는 시간도 가질 예정이다.

8월 게시판

일자

행사

- | | |
|----------|------------|
| 5 ~ 7일 | 농어촌전도단 교육 |
| 7 ~ 10일 | 대학부 여름수련회 |
| 8 ~ 10일 | 고등부 여름수련회 |
| 11일 | 농어촌전도단 파송식 |
| 12 ~ 15일 | 농어촌전도단 활동 |
| 14 ~ 16일 | 청년부 여름수련회 |
| 21일 | 학습·세례식 |
| 25일 | 장학금수여식 |
| 25일 | 새가족환영회 |

창세기 강해



참된 애정의 힘

(창세기 43장 15 ~ 34절)

이종운 목사

독일의 시성 괴테는 <사생의 소녀> 라는 책 속에 사랑의 힘을 다음과 같이 표현했습니다. "아무리 큰 공간일찌라도, 설령 그것이 하늘과 땅 사이라 할찌라도 사랑의 힘으로 메울 수 있으리." 사실 작은 구덩이 하나를 메우기도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런데 하늘과 땅의 공간을 메울 수 있을만큼 하염없는 것이 사랑의 힘이라고 하였습니다. 물론 시적인 표현이지만 사랑의 힘은 이와 같은 엄청난 힘이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요셉의 사랑을 통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강한지를 볼 수 있습니다.

1. 사랑은 책임을 다하는 것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은 나라에 대해 책임을 다하는 사람입니다. 교회를 사랑한다면 교인으로서의 책임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요셉은 그토록 사랑하는 형들과 그리워하던 동생 베냐민이 온 것을 알면서도 청지기를 시켜 자기 집으로 그들을 인도하게 하게 하고 자신은 정오에 가겠다고 말합니다. 당장 쫓아가 부둥켜 안고 형제의 정을 나누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을 것이나 공무를 집행하는 낮시간동안은 사사로운 일을 하지 않는 요셉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공과 사를 분별할 줄 아는 자요 개인적인 일로 공무를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30세에 애굽을 치리하는 총리의 자리에 앉을만큼 그는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이 그 자리에 이른 것은 기적으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확고한 직업의식과 자기의 책임을 끝까지 완수할 줄 아는 성실한 인격을 그는 소유했던 것입니다.

2. 사랑은 주는 것

하나님과 그의 말씀을 지극히 사랑한 요셉은 주변 사람들에게 신앙적 영향을 주었습니다. 형들은 요셉의 집에 인도함을 받으면서 여전히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래서 자루 안에 들었던 돈 문제를 해명하고 반환하겠다고 미리 돈을 청지기에게 내놓았습니다. 두려워하는 형들에게 요셉의 청지기는 위로의 말을 했습니다.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

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23절). 중은 자기 주인 요셉의 하나님께 향한 신앙을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가까운 이들, 특별히 자신의 행동을 밤낮으로 보고 있는 사람들에게 신앙적인 영향을 끼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요셉이 이방나라에서 이토록 영향을 끼칠 수 있었던 것은 참으로 귀한 일입니다.

이방인 청지기가 하나님의 백성인 야곱의 아들들에게 오히려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라고 권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이같이 큰 은혜를 입고 있으면서 깨닫지도 못할 때는 하나님께서 종종 불신자들을 통해서라도 받은 은혜에 대해 깨닫게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3. 사랑은 믿는 것

요셉의 형들은 요셉에게 예물을 바치며 땅에 엎드려 절을 했습니다(26절). 그리고 야곱을 '주의 종 우리 아비'라 하면서(27절) 아비가 평안하다면서 다시 머리숙여 절을 했습니다(28절). 창세기 37장 10절에서 야곱은 요셉의 꿈을 책망했지만 지금은 그 꿈대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과 그 약속을 믿었기에 그의 비전은 이루어진 것입니다.

4. 사랑은 용서하는 것

부친과 형제에 대한 애정을 가진 요셉은 그들의 과거를 다 용서하고 오히려 복을 빌어줍니다.

"너희 아버지 그 노인이 안녕하시나 지금까지 생존하시느냐"를 묻는 요셉의 질문에는 아버지에 대한 애정이 담겨 있습니다. 요셉은 동생 베냐민에게 "소자여 하나님이 네게 은혜베푸시기를 원하노라"고 축복합니다. 기도는 최고의 애정표현입니다. 요셉은 그 땅의 주인이나 다름없지만 하나님께서 베냐민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았다면 자기의 호의도 아무 소용없는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우리는 사람의 호의보다 모든 통치자의 통치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요셉은 동생을 보고 그 타오르는 정을 억제할 수 없어서 울 곳을 찾아 급히 들어가 울었습니다(30절).

요셉은 양식 때문에 고생하는 형들을 보고 요셉은 저들을 위로하기 위해 잔치를 베풀어

즐겁게 하고 종들을 시켜 발을 씻게 하고 나귀에게 먹이도 주었습니다. 귀빈 대접을 한 것입니다. 요셉은 감정을 절제하고 식탁의 예의를 갖추면서도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식탁은 3개가 놓였습니다. 형들을 위한 것과 그와 함께 식사하는 애굽인들을 위한 것 그리고 요셉 자신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애굽인은 히브리인과 함께 식사하지 않는 관습을 따라 애굽인에게 히브리인과 함께 할 것을 강요하지도 않고 자신이 히브리인임을 드러내지도 않았지만 애굽인과 함께 하지도 않은 것입니다. 요셉은 형들을 장유의 차서대로 앉혔습니다. 형들은 이것을 이상히 여겼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자기를 나타내시지만 죄로 눈이 가리운 인간들은 그분이 그리스도이심을 알지 못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아버지 야곱, 형들, 그리고 동생 베냐민요을 향한 요셉의 사랑이 형들의 잘못을 다 용서하게 하고 자신의 고통도 승화시키는 힘이 되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습니다. 사랑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이겨야 하겠습니까.

✧ 순례자 컬럼 ✧

"하나님을 만날 준비"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 언제 어디서 어떤 하나님을 만나느냐가 문제다. 공의의 하나님을 심판의 보좌에서 지옥으로 끌러가는 죄수로 만날 사람도 있을 것이고 사랑의 하나님을 은혜의 보좌에서 구속받은 성도로 만나뵈게 될 사람도 있을 것이다. 어떤 이는 죄를 짓고 채찍을 드시고 진노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도 되고 어떤 사람은 은혜와 평강의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이들도 있다.

여름과 가을에 겨울이 올 것을 알면서도 준비 못한 이는 엄동설한이 오면 춥고 배고플 것이고 죽음이 온다는 만고의 철학을 알면서도 죽을 준비 못한 이는 죽을 때에 두려움과 억울함과 슬픔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할 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먼저 찾는 지혜가 있어야 한다.

중국선교여행을 다녀와서

중국도 보아야 하리라

김선미(권사, 11교구)

6월 27일, 천진에 도착. 짐이 너무 많다고 공항 직원이 나를 한쪽으로 따로 세운다. 짐 속에는 성경과 찬송가가 50권씩이나 들어 있으니 중량초과로 20만원의 벌금을 물어야 했다. 성경이 발견될 경우는 그들이 요구하는대로 어마어마한 벌금을 더 물어야 한다. 그런데 막상 성경책이 든 내 가방은 거들떠 보지도 않고 통과가 되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가리우신 것이다.

24시간 기차를 달려 29일에 연변교회에 도착했다. 예배와 간증을 마친 뒤에도 조선족들이 우리의 숙소로 찾아왔다. 그들은 매우 갈급해 했다.

주일(30일)에는 화룡에 있는 복동교회에서 밤 12시까지 간증집회를 가졌다. 그 다음 날에는 전도사님댁을 방문하였다. 성도들이 모여있다가 반갑게 맞이한다. 그곳에서의 일정을 마치고 작년 중국 방문 때 만났던 박성숙

그 땅의 사람들에게 성경을 또 가져다 주마고 약속했다.
그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나는 또 가야할 것 같다.

집사댁에서 저녁을 대접받은 후엔 밤길을 걸어 다음 집회장소로 갔다. 그곳은 저녁 4시만 되면 버스가 모두 쏜다. 그곳은 삼자교회가 아니면 아무데서나 집회를 할 수 없다고 했다. 설교나 간증집회, 성경공부 등을 한 것을 알면 공산당원이 요구하는대로 많은 벌금을 물어야 한다고 했다.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밤이 맞도록 간증하며 기도하였다. 새벽에 신고를 받고 공산당원이 물려왔다는 소식을 접했다. 우리는 예정했던 여정에서 한 곳을 포기하고 14시간 기차를 타고 목당강 칼로교회에 가게 되었다. 그곳도 역시 한국에서 오신 목사님들이 말씀을 전하다가 벌금을 물었다고 했다. 자본주의의 맛을 본 중국은 완전히 돈에 노예가 되어 있는 것처럼 보였다.

하나님께서서는 우리가 어려움에 처할 때마다 피할 길을 주셨다. 목당강은 연변과 사정이 많이 달랐다. 목당강 칼로교회는 그야말로 은혜와 성령이 충만하였다. 그 교회를 설립한 김기범 집사는 하나님께서 아내의 병을 고쳐 주신 것에 감사하여 변화를 받아 헌신하게 된 사람이었다. 그는 그곳에 신학교를 세우기 위해 이미 정부의 허가까지 받아 놓았다. 그는 유아원을 만들 계획도 가지고 있었다. 어린이들에게 복음을 심어주고 신앙 안에서 교육하기 위한 큰 꿈을 가지고 있는 것이었다.

안도현에서는 우리나라 해방전부터 장로였다가 1966년 문화혁명 때 그곳에서 처참하게 순교당한 전하의 장로의 가족들을 만날 수 있었다. 순교자의 후손인 전봉숙 집사는 그곳 노인들을 찾아 먹을 것을 주며 복음을 전하고 있었다.

중국은 기차를 한 번 타면 같은 나라 안인데도 10시간은 보통이다. 그 큰 땅의 사람들이 성경책을 달라고 하기에 꼭 가져다 주마고 약속했다. 돌아와 긴장이 풀리니 온 몸이 아파오지만 이 몸이 부숴지더라도 그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나는 또 가야할 것 같다.

걸어서 거문도까지

짧은 여행 긴 여운

최 읍(대학부)

지난 15일부터 27일까지 무전 도보여행을 다녀왔다. 서울을 출발해 수원, 평택, 정안, 정주 등을 거쳐 순천, 여수까지 힘있는 한 걸어서 여행을 했다.

여행을 했던 기간이 그곳 주일학교 여름성경학교가 열리고 있거나 준비하는 시기였다. 자연스럽게 그 교회들의 행사모습을 볼 수 있었다. 숙달된 기술이나 충분한 도구는 없었지만 즐거움과 열심이 그 가운데 있었다.

학생들은 낮에는 물놀이에 열중했고 밤에는 중고등학생처럼보이는 교사들과 함께 직접 만든 성극대본으로 정해진 배역에 따라 나뭇가지, 종이왕관, 보자기 등 간단한 소품으로 촛불예식을 마치고 조별경연대회를 열었다. 누군가 우스꽝스러운 모습을 보이면 피곤함도 잊어버린 학생들의 웃음소리가 창문을 타고 밤하늘의 별들에게 퍼져갔다.

여행 후 첫 수요일밤, 논산시 기독교 연합회 연합예배에 참석할 수 있었다. 예배는 감리교 본당에서 드리지게 되었는데 그 지역 교회들이 모두 한자리에 모인 것 같았다. 장로교, 감

혼자서는 움직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정지해 있을 수도 없었다.
길도 물어야 했고 잠잘 곳도 허락을 받아야 했다.

리교, 침례교, 성결교, 대 학교회, 연무대교회까지 교파를 초월하여 지역사회의 복음화를 위한 그들의 뭉침 속에는 예수님께서 계셨다.

여행의 네번째날엔 전주 팔복동의 한 조그마한 교회를 찾았다. 모두 네 사람인 목사님의 가정은 예배당과 맞붙여 베니아판으로 칸막이된 곳에 있었다. 바깥에는 비닐하우스모양의 좁 후덥지근한 식당이 있었다. 그제 교회건



물의 전부였다. 10년 전에 세워졌다는 그 교회는 주일학교를 제외한 성도의 수가 50명 정도였던 것으로 기억된다.

목사님은 기도 중에 이 지역이 눈앞에 비취졌고 실제로 찾아보니 확신이 되어 그 지역에 교회를 세웠다고 하셨다. 아무 것도 없는 텅빈 시멘트 바닥에 베니아판으로 강대상을 놓고 혼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셨다는 것이다.

예배실을 다시 한번 둘러보는 나에게 목사님께서 지금의 멋진 강대상과 그 뒤의 의자는 다른교회에서 사용되다가 새 교회를 짓게 되어 마땅히 처리할 곳이 없다고 해서 가져오신 것이라 하셨다. 무엇보다도 기억에 남는 것은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나서 지금까지 매주 금요일에 교인들과 함께 드리는 산상기도가 한번도 빠짐없이 이어져왔다는 목사님의 말씀이다. 눈이 오면 눈을 맞고 비가 오면 비를 맞고 추우면 추운 대로 더우면 더운대로 몇사람이 참가하든 이 기도모임은 철칙으로 지켜졌단다. 교회 크기가 상당히 작아 별게 있을까 하고 생각했던 내 자신이 너무나 부끄러웠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것이지만 사람이 세우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 아직도 내 뇌리 속에 분명하게 새겨져 있다.

여행 중에 내가 절실히 느낀 점들의 하나는 혼자서는 움직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정지해 있을 수도 없다는 것이었다. 길도 물어야 했고 사진 한장을 찍으려 해도 다른 사람에게 부탁해야 하며 잠잘 곳도 여러 사람을 통해 허락을 받아야 했다.

힘든 점도 어려운 점도 많았던 여행기간이었지만 그럴 때마다 내자신을 바라보기보다는 하나님을 의지할 때 이겨낼 수 있었고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된 귀중한 시간이었다.

“복음과 문화 한국교회가 풀어야 할 과제들”

제 10학기 목회자 신학세미나 주제와 강사 결정

한국교회갱신연구원(KIMCHI)에서 개최하는 제 10학기 목회자신학세미나가 9월 2일에 YMCA대강당에서 개강한다.

11월 4일까지 매 주 월요일에 계속될 이번 학기의 주제는 “복음과 문화: 한국교회가 풀어야 할 문제들”이다.

제 1교시는 이종윤 목사의 강의를 통해 성경의 다이아몬드로 불리우는 로마서를 심도 있게 강해하는 법을 연구하게 될 것이다.

한편 제 2교시는 전문적 지식과 신앙을 가진 국내외 석학들의 특강으로 이어지게 된다. 특강의 제목과 강사는 ‘급변하는 사회와 목회자윤리’ (박동현 박사), ‘향락적 사회현상과 윤리적 위기’ (차경수 박사), ‘환경운동과 교회의 역할’ (김정욱 박사), ‘영적 전쟁’ (로간 박사), ‘소비문화와 한국경제’ (서상목 박사), ‘기독교 신앙과 전통윤리’ (김중기 박사), ‘명의상 교인과 한국교회’ (신국원 박사), ‘복음과 상황’ (김지철 박사), ‘예배의식과 교회’ (알렌 박사), ‘세계복음화와 그리스도의 재림’ (최재덕 박사)이다.

한국교회갱신연구원은 한국교회가 새로와지기 위해서는 강단이 새로와져야 하며, 강단이 새로와지기 위해서는 강단을 책임진 목회자들이 새로와져야 한다는 필요성에 따라 목회자의 영성개발과 성숙을 돕기 위해 1992년에 개원하였다.

본 연구원에서는 그간 ‘설교와 목회’, ‘21세기를 향한 바람직한 교회갱신과 목회’, ‘급변하는 사회와 교회갱신’, ‘목회자의 경건과 설교’, ‘강해설교와 영적갱신’, ‘경건과 교양’, ‘목회와 영성’, ‘현대교회와 인성회

복’ ‘현대사회와 교회’ 등 한국교회 갱신에 필요한 주제를 가지고 총 9학기의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매 학기 700 ~ 800명의 전국 목회자가 교파를 초월하여 참석하여 말씀을 공부하면서 영적인 재충전의 기회를 가질 뿐 아니라 한국교회의 일치를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는 이 세미나는 목회자에게 지속적인 말씀공부와 신학적 지식습득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현대교회의 목회 방향을 새롭게 조명해주는 계기를 마련하였다고 평가되고 있다.

제 10학기 프로그램

제 1교시	제 2교시
로마서강해 이종윤 목사 (서울교회)	급변하는 사회와 목회자 윤리 박동현 박사 (장신대)
	향락적 사회현상과 윤리적 위기 차경수 박사 (서울대)
	환경운동과 교회의 역할 김정욱 박사 (서울대)
	영적 전쟁 S.T. 로간 박사 (웨스트민스터신학대)
	소비문화와 한국경제 서상목 박사 (국회의원)
	기독교신앙과 전통윤리 김중기 박사 (연세대)
	명의상 교인(Normal Christian)과 한국교회 신국원 박사 (총신대)
	복음과 상황(Text and Context) 김지철 박사 (장신대)
	예배의식과 교회력 H. 알렌 박사 (보스톤 대)
	세계복음화와 그리스도의 재림 최재덕 박사 (서울여대)

■ 이종윤 목사 방송설교 ■

기독교방송(HLKY 837KHz)	「성서강해」	화요일 오전 5시 35분 ~ 6시
춘천기독교방송(HLDC 93.7MHz)	「성서강해」	화요일 오전 5시 35분 ~ 6시
극동방송(HLKK 1188KHz)	「생명은 빛으로」	금요일 오전 9시 ~ 9시30분
대진극동방송(HLAD FM 93.3MHz)	「늘푸른 초장」	주일 오후 10시 ~ 10시 45분
아세아방송(HLAZ 1566KHz)	「라디오 강단」	주일 오전 8시 30분 ~ 9시
	「새벽의 강단」	금요일 오전 4시 20분 ~ 4시 50분

농촌전도단 교육

7일(수) ~ 10일(토) 오전 6시

전도위원회에서는 오는 12일(월)부터 15일(목)까지 3박 4일간 충남 공주군 울정리로 파송될 '96 농촌전도단의 교육을 이번 주간에 실시한다. 전도 및 봉사활동을 하게 될 축호전도팀, 여름성경학교 진행팀, 의료봉사팀, 지역봉사팀은 7일(수) - 10일(토) 4일간 매일 새벽기도회 후인 오전 6시부터 7시 30분까지 4층 초등부실에서 전도훈련을 받게 된다. 또한 전도단원들은 이 시간에 구체적인 전도전략을 세울 뿐 아니라 성경학교나 봉사활동을 위한 준비와 훈련도 겸하여 하게 된다.

지원품 및 차량봉사자 모집

전도위원회에서는 농촌전도단의 활동에 필요한 지원품 및 차량봉사자를 기다리고 있다. 현지 주민들에게 나누어줄 비누, 치약, 수건 등 생활필수품은 11일(주일)까지 사무국에서 접수한다. 또 차량지원 및 운전 가능한 성도들의 지원도 필요하다.

대학부 · 고등부 수련회

7일(수)과 8일(목)에 각각

교회학교의 여름수련회가 이번 주에도 계속된다. 대학부는 7일(수)부터 3박 4일간 원호 목사님과 임진태 목사, 박귀환 목사, 이순환 목사님을 강사로 한울교회수양관(청평 소재)에서 수련회를 갖는다.

한편 고등부는 8일(목)부터 2박 3일간 이종윤 목사님과 김명현 목사, 임진태 목사, 이순환 목사, 원호 목사님을 강사로 노량진교회수양관(양평 소재)에서 수련회를 개최한다.

계속되는 기도의 행진

기도로 하나님의 전을 세우기 위해 “① 기도의 벽돌을 나도 함께 쌓는다 ② 능력의 지팡이로 장애물을 제거한다 ③ 온전한 헌신으로 주의 전을 세운다”라는 행동강령을 가지고 진행되었던 흥해작전. 그 기도의 열기를 계속 이어가기 위해 금주부터 금요일 야기도회는 새 예배당 건축을 위한 특별기도회로 진행하기로 하였으며, 당회원들은 릴레이 기도에 진입했다.

서울주간가

●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1. 수해를 당한 형제들을 위해
2. 교회학교의 여름수련회를 위해
3. 농촌전도단을 위해
4. 투병 중인 성도들을 위해
5. 민족복음화와 세계선교의 산실이 될 전(殿)을 건축할 수 있도록

■ 예배 및 집회

구분	시	간
주일 예배	I부	오전 9시
	II부	오전 11시
	III부	오후 2시
찬 양 예배	주일 오후	5시
수요 예배	I부	오전 11시
	II부	오후 7시
금요기도회	오후	9시
새벽기도회	매일 새벽	5시 30분

■ 교회위치

